

# 5월 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5월 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테스트 결과 긴장.. 다우 102.43P↓	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차익을 챙기려는 매물들이 몰려 초반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반전.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02.43 포인트(1.2%) 내린 8409.85, S&P500 지수는 12.14 포인트(1.32%) 떨어진 907.39, 나스닥 지수는 42.86 포인트(2.44%) 빠진 1716.24 로 거래를 마감.
버냉키 연준 의장 "은행 유동성 매일 체크"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7일(현지시간) "연준은 은행들의 유동성 상태와 리스크를 매일같이 보다 철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시카고 연방은행 컨퍼런스에서 위성화면을 통한 연설 직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유동성과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美 신규실업수당청구 `3개월 최저`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그러나 실업수당 연속 수급자는 14주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 7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2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3만4,000명(계절조정) 감소한 60만1,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루비니 "스트레스 테스트에 스트레스는 없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7일(현지시간) `스트레스 테스트`가 너무 엉성한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우울한 경제전망으로 닥터 돔(Dr. Doom)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루비니 교수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스트레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로 금리인하 불구 강세..'채권 매입 소폭'	금리인하와 채권매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달러대비 강세를 유지. 채권 매입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점이 유로가치를 지탱.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금융통화정책회의를 개최, 기준금리를 종전 1.5%에서 1.0%로 0.25%포인트 인하. 이로써 유로존 기준금리는 ECB 출범이후 최저치를 기록. ECB는 또 600억유로(805억달러)규모의 커버드 본드(담보부 채권)를 매입,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
닌텐도, 엔화 강세에 분기 실적 부진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닌텐도의 회계 4분기(1~3월) 영업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539억3,000만엔으로 집계. 같은 기간 매출은 15% 줄어든 3022억7,000만엔. 다만 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다른 가전제품 업체 대비로는 선방. 소니는 엔화 강세에 수요 급감, 구조조정 비용 증가 등으로 실적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

제목	주요 내용
윤중현 "경기전망,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윤 장관은 7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계 미래 포럼 창립 기념 리셉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동성 과잉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지금 (유동성 과잉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아직 갈길이 멀고 실물부분에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IT 수출 바닥쳤다..반도체 4개월째 개선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4월 IT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5% 감소한 94억7,000만달러로 잠정 집계. 지난해 12월 -39.2%를 기록한 이후 감소폭은 차츰 줄어들고 있음. 월별 수출액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90억달러대에 진입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 반도체의 수출 개선이 가장 가시적임. 4월 반도체 수출은 21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6.2% 감소. 지난해 12월 50%에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크게 완화. 이는 업계의 감산과 구조조정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
車공장, 활력찾나...생산량 석달째 늘어	7일 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완성차 7사의 국내공장 생산은 모두 26만 9,263대로 전월대비 2.9% 증가. 이들 업체의 국내공장 생산은 작년 10월 40만대를 웃돌았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내외 수요 감소와 생산량 감축으로 올해 1월에는 19만대 수준으로 추락. 하지만 2월 23만7,006대를 기록한 이후 3월 26만1,701대, 4월 26만9,263대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음. 업체별로는 GM대우와 대우버스를 제외하곤 전 업체가 전월대비 신장세를 나타냈음.
KKR, 오비맥주 18억불에 인수	콜버그크레비스로버츠(KKR)가 오비맥주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7일 KKR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한국시간) 안호이저부시(AV)인베브와 KKR은 오비맥주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 인수 금액은 18억달러(2조3,000억원)로 올 들어 국내 M&A 중 가장 큰 규모. 이에 따라 KKR은 오비맥주 새주인 됐다는 공식발표를 이날 오후 4시 조선히otel에서 가질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